

2020 - 2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후기 공모전

- 프로그램 및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우 여러분!!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후기 공모전을 통하여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비교과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을 소개해주고 싶어 글을 적게 됐습니다.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참여해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과대학 학술제'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학술제란 주어진 주제에 한해서 학과별로 자신이 배운 전공과목을 접목하여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공대 학술제의 주제는 "매체 속 미래 기술의 현실화"에 대한 주제로 영화, 애니메이션 속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한 실현 혹은 재해석하여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며 거부감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라에몽'에 나오는 '대나무 헬리콥터'를 통해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어렵고 딱딱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평소 자신이 좋아하거나 재미있게 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열리는 학술제 외에도 각 단과별로 학술제가 열리니 동기들과 함께 학술제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참여 계기

3년 동안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시켜보거나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가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하향세를 반전시켜줄 만한 것들을 찾아보던 중 비교과 프로그램인 '공과대학 학술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라면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시켜 그동안 가진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 내용

항공우주공학과라는 특성에 맞게 날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조명을 비추어 아이템 선정에 고려했습니다. 어렵지 않고 모두에게 쉽고 익숙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도라에몽" 속에 나오는 '대나무 헬리콥터'를 가져왔습니다. 대나무 헬리콥터의 물리적 오류를 해결해보고 실제로 제품 개발이 된다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적화되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대한 학부생 때 배우는 내용을 적용시켜보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로 동축반전식로터, 블레이드 형상변경, 저소음을 위한 프로펠러 개선이 있었습니다.



-> 탐구한 내용을 본선에서 발표하는 장면

- 수강 후 변화 또는 느낀 점

이번 경험을 통해 책에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공학도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책과 노트에서만 머물던 전공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며 학업적 부담 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단계를 지나며 전공에 대한 지식을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생의 입장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보며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며 오류를 찾아내거나 물리학적 현상이 잘 적용된 것들을 보면서 즐겁게 시청을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한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은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 벗어나 부족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